

## 최첨단 시설을 통한 대농가 서비스에 앞장



▲ 충북 옥천에 위치한 (주)CKF 사료공장 전경

(주)CKF 사료공장이 지난 5월 18일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에 새롭게 터전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최근 DDA 및 한미 FTA협상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축산업 발전을 기하기 위해 경쟁대열에 합류한 CKF의 대농가 서비스 및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보았다.

### 40년간 양계산업과 동반자로

천광사료라는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주)CKF는 지난 1966년에 설립되어 ‘가축에게는 만족을 양축가에게는 이익을’이라는 경영이념아래 축산업과 항상 동반자로서 축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특히 양계분야 사료공급 비중이 높아 양계인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지난 1988년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등 우량기업으로 성장하였으나 1998년 IMF 경제위기로 인해 회의 인가가 결정되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임직원들이 합심하여 회사를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고 이것이 결실을 맺게 되면서 지난 2004년 4월 회의종결이 현실로 다가서면서 양축가 서비스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



▲ (주)CKF 박형 대표

다. (주)CKF는 그동안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기하면서 인천 공장을 통해 양축가들에게 사료공급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왔다.



▲ 지난 5월 18일 준공기념식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 1일 320톤 생산

(주)CKF는 충북 옥천의 17,000평 대지위에 건평 1,400여평의 공장 및 사무실이 자리잡고 있다. 생산능력을 보면 1일 8시간 기준(효율 80%)으로 320톤을 생산할 수 있으며, 가공사료는 2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다. 약 100억원 규모의 투자비를 들여 준공한 사료공장은 저장시설(주원료 사이로 1,000톤 2기와 제품빈 49기 등), 분쇄시설(100마력 햄머밀 3대), 배합시설(주 배합기 5톤), 가공시설(펠렛 3기) 등 최첨단 기술력을 동원해 설비가 되었으며, 마이크로빈 44기를 설치하고 첨가제를 별도로 저장하여 계량오차가 10g이내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설비되었다. 또한 HACCP 및 소비자들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항생제 분리라인을 별도로 설치하여 항생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금투입라인을 별도로 설치하여 배합능력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전문 CEO로 금년부터 (주)CKF의 책임을 맡고 있는 박형 사장은 현재 육계사료가 거의 95%를 차지하고 있지만, 산란, 양돈, 오리 등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 양축가들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또한 (주)CKF는 18만수의 직영 육계농장을 비롯해 37개의 위탁사육농가를 확보하고 있으며, 주당 28만수의 병아리를 생산할 수 있는 부화장을 통해 탄탄한 계열화 사업을 구축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특히 농장성적을 최소 220이상의 생산지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사료를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 외형보다 내실을

박형 사장은 '이번 신축된 공장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외형보다는 내실을 기해 양축가 서비스에 충실할 것' 이라고 말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주)CKF가 모든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보자는 결의에 차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양축가 여러분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박형 사장은 현재 육계사료 생산에 주력하고 있지만 경기도 광주시 오포에 대단위 난가공 및 집하장 설치가 8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단사업의 활성화로 계열 농가에 산란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될 것이며, 육계, 산란계 모두 국내에 맞는 계열화 실현을 위해 새로운 도약과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